

과제 수행에서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개입 행동이 아동의 정서표현과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

송하나* 최경숙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과

순야 소곤
고카 여자대학교 인간 과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제 개입 행동이 아동의 정서표현과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서울과 오사카에 사는 만6세 아동과 어머니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두 나라에 동일한 관찰실을 구성하고 아동과 어머니가 마주앉아 받아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개입 행동과, 아동의 정서표현, 아동의 자기조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분석 준거를 통일하였다. 녹화된 행동을 각국에서 두 명의 코더가 먼저 분석하고 이후 자료를 교환하여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통제적 개입 행동이 아동의 짜증을 유발하였으며,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자기 조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도움 주기가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과 관련이 있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일본 어머니의 격려는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은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논의되었다.

주요어: 과제 개입, 정서표현, 자기조절, 비교문화연구, 일본

부모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과제 수행을 돕는 일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 등의 성인에게 도움을 받아 혼자서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Mulvaney, McCartney, Bub, & Marshall,

2006). 이와 유사하게 동기, 집중력, 혹은 참을성의 부족으로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 어머니가 이를 격려하여 과제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행 연구들(성희용, 방희정, 이순행, 2005; Neizel

* 교신저자: 송하나, E-mail: jni4ever@skku.edu

& Stright, 2004)은 이처럼 부모가 아동의 과제 수행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때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모가 과제 수행을 위해 아동과 상호작용 할 때, 아동의 정서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의 경우, 혼자 어떤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식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해야 아동이 즐거움을 느끼고 참을성 있게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송하나와 최경숙(2009)의 이전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어머니가 과제에 개입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즐겁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특별히 개입하는 일이 적었으며 아동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머니는 더 자주 격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어머니의 과제 개입이 아동의 자기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수행 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가 많을수록 자기 조절을 잘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과제 수행에 부모가 관심을 가지거나 개입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난다. 학자들(Dixon, LeVine, Richman, & Brazelton, 198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은 부모의 행동이 문화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동의한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문화적 차이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모자 관계나 양육 행동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들은 동서양의 차이 뿐 아니라 같은 동양 문화권 내에서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비교문화적 관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어머니들 간에 과제

개입 행동의 차이를 살피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가치관과 민족적, 역사적 특성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과제 개입 행동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비교 문화 연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한-일 비교문화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구 어머니들과의 차이점들이 더 많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부모의 과제 개입 행동을 살필 때 부모의 양육 행동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부모의 과제 개입과 지도 행동에 대해 Holloway와 동료들(Holloway, Fuller, Hess, Azuma, Kashiwagi, & Gorman, 1990; Holloway, Suzuki, Yamamoto, & Nehrens, 2005)은 일본 부모가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해 과제를 돕거나 성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며, 특히, 유아기부터 부모의 개입과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성취에 대한 일본 부모의 높은 관심은 한국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을 비교한 몇몇 연구들은 한국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보다 더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정규와 최순자(2007)의 연구에서 일본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들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 반면, 통제적 행동은 적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순자(2008)는 한국 부모가 일본 부모보다 학습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순종을 중요시하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어머니들은 아동이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부정적 정서를 보

이거나 통제하는 일이 빈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Nishino, 1990; Sugano, 2001). Hess와 동료들(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 1980)은 일본의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서구의 어머니들에 비해 어른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사회적인 예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와 행동 조절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비교에서는 한국 어머니들보다 통제적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사회적 화합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는 되도록 갈등을 피하고 대인 간의 부드러운 조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Rothbaum, Weisz, Pott, Miyake, & Morelli, 2000). 이러한 문화적 성향이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최순자(2008)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타인에 대한 예의와 절제를 사회능력의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부모가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는 일이 한국 부모보다 적다고 하였다. 즉, 부모-자녀 간에 일방적인 통제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와 공감, 협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엄마는 직접적으로 꾸중하는 일이 적으며 훈육을 할 때에도 간접적인 방법이나 우회적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알려져 있다(김현덕, 1992; Kashiwagi, Azuma, & Miyake, 1982; Miyake, & Yamazaki, 1995).

다음으로, 일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룬 연구들과 일본과 서구 어머니들을 비교한 선행 연구를 더 살펴보면 한국과의 비교에 대한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 어머니들은 서구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의 자율성을 덜 존중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서구

의 애착 연구들은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Colin, 1996). Rothbaum 등(2000)은 미국 어머니들은 영아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어떤 신호를 감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일본의 어머니들은 영아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영아가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관점으로는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임의대로 반응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부모들은 서구의 부모에 비해 외적으로 정서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 정서 표현이 강하거나 정서를 쉽게 수용하는 것은 일본 문화의 미덕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본의 부모들은 아동들이 부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한다(Kashiwagi, et al., 1982; Miyake, & Yamazaki, 1995). 그러므로 일본의 아동은 외현적으로는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부모 자신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자녀들 앞에서 쉽게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의 어머니들이 서구의 어머니들과 정서와 행동의 규제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어머니들과의 과제 개입 행동 비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의 부모와 유사하게 한국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벌써 자녀의 상태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심전심’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다.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대화가 적고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양육 행동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 현대 사회가 일본처럼 정서나 행동의 억제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서구와 비교해서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의 과제 개입 행동이나 아동들의 정서 표현은 일련의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어머니가 아동의 과제 수행을 위해 보이는 행동은 지도, 도움, 혹은 비계 설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개입(involvermen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1.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의 과제 개입 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한국 아동과 일본 아동의 정서표현과 자기조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과제 개입 행동, 아동의 정서표현 및 자기조절과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6세의 한국 아동 65명(남아40, 여아25)과 일본 아동 78명(남아42, 여아36) 그리고 이 아동들의 어머니이다. 원래 참가한 66명의 한국 아동들 중 쓰기에서 한 시간 이상을 소요한 극단치 1명을 제외하고 65명만이 고려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아동들 모두 인지나 언어 능력이

정상인 아동들로만 구성되었다.

비교 문화 연구를 위해, 각 나라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아동들로 표집하였다. 한국의 아동들은 서울 강남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이었으며 부모의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동들이었다. 일본 아동들은 오사카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었다. 부모의 대부분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며 일본의 소득 수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가정들이었다. 중산층 가정의 판단은 각 나라 연구자들이 소득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의 대부분이 30대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에게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관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배치가 동일한 관찰 세팅을 구성하였다.

관찰실 세팅

한국에서는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된 관찰실을 만들었으며 일본에서는 오사카의 대학교에 있는 심리행동연구실에서 관찰과 녹화가 이루어졌다. 두 관찰실 모두 아동과 어머니가 마주 볼 수 있게 의자와 책상을 배치하였으며 관찰실 바닥에는 장난감을 두어 과제가 끝난 후 자유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일본의 연구자가 한국에 와서 세팅을 보고 일본의 세팅과 같은지 점검하였다.

과제 수행

한국과 일본의 아동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30자 정도로 된 글을 받아쓰기 한 후, 어머니가 10자 내외의 문장 4개를 만들어 아동에게 받아쓰도록 하였다. 한국

아동을 위한 견본은 이중 받침자를 포함하여 너무 쉽지 않게 난이도를 조절하였으며, 일본 아동에게는 히라가나 외에 쓰기 어려운 한문을 포함한 견본을 만들었다. 또한 견본의 내용을 날씨와 놀이에 관한 것으로 유사하게 맞추었다. 어머니들이 만든 문장 또한 유치원과 가족에 관련된 것으로 샘플(예: 동생과 물놀이를 합니다)을 보여주어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아동이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동과 자유롭게 상호작용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아동 대신 글자를 써주는 것만은 금지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과제 수행 상황이 그림 1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한국의 관찰 상황



그림 2. 일본의 관찰 상황

행동 분석 준거와 점수화

먼저 비교문화 연구를 위해 일본 연구자가 구성한 분석 준거를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하였다. 특히, 두 나라 간에 일치하지 않는 준거를 제외하거나 수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연구자는 부모의 개입 행동에서 행동적 통제와 언어적 통제를 분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언어와 행동이 분리되는 일이 거의 없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최종적으로 언어와 행동을 합하여 ‘통제적 행동’의 한가지로 정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촉진(facilitation) 행동은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녹화된 자료를 분석하고 코딩지와 녹화 테이프를 교환하여 서로 점검하였다. 녹화된 테이프를 20초 간격의 단위로 나누고 한 단위마다 목표 행동이 나타나는지 코딩하는 방식을 두 나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아동발달 전문가인 연구자들과 훈련받은 대학원생이 코딩에 참여하였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연구자와 함께 예비실험으로 실시된 한국 케이스 3개를 연습 코딩하였다. 이 연습에서 일본과 한국 코더간의 일치도가 90%였다. 한국 코더들은 전체 케이스의 20%를 따로 코딩하고 신뢰도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변인에 대해 $\kappa=.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연구자를 포함한 대학원생들이 코딩한 결과 코더 간 일치도는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더 간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아동 전문가인 연구자들의 코딩을 따랐다. 각 변인들의 분석 준거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과제 개입 행동

송하나와 최경숙(2009)은 선행 연구들(Fish, &

Stifter, 1999; Kochanska, & Aksan, 1995; Mulvaney, et al., 2006)을 참고하여 어머니가 과제에 개입하는 행동을 지시, 간섭, 격려하기, 도움주기, 정적 정서표현, 무시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공통적인 기준으로 수정하기 위해 여섯 가지를 종합하여 통제적 행동, 도움주기, 그리고 격려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통제적 행동은 일방적인 지시, 간섭, 명령, 재촉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표 1. 어머니 과제 개입 행동의 하위 요인

과제 개입	설명
1. 통제적 행동	과제를 하는 동안 아동의 수행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독촉하거나 교정하는 어머니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ex) “여기부터 써” “연필 제대로 잡아” 등의 지시 ex) “빨리해” “빨리 안하고 뭐하니” 등의 독촉 ex) 아이 손잡고 쓰기 등의 간섭 ex)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때 보이는 부적 정서 반응
2. 도움 주기 (행동적)	아동이 과제 수행을 수월하게 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행동 ex) 지우개로 지워 주기 ex) 틀린 글자 알려주기 ex) 쉽게 종이 잡아주기 예외) 아동이 어머니의 도움을 거부하는데도 계속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통제적 행동으로 본다
3. 격려 (언어적)	아동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아동의 정서에 공감하고 위로하거나 동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언어적 행동 ex) “자 조금만 더 하자” ex) “그거 다하면 이제 재미있는 거 할 꺼야”

또한 어머니가 아동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은 아동의 반응에 따라 행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어머니의 도움을 거부하는데도 계속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도움이 아니라 통제적 행동으로 보았다. 즉, 어머니의 행동이 도움인지 통제인지는 아동의 반응과 함께 평가되었다. 각 하위 요인은 표 1과 같이 설명된다.

한 단위인 20초 동안 세 가지 행동들이 관찰되는지 중복 코딩하였다. 관찰된 단위마다 각각 1점씩을 주었다. 전체 점수를 합하고 수행 시간의 단위로 나누어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2) 아동의 정서 표현

아동이 과제 수행 동안 표현하는 정서를 웃음, 짜증, 화남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동들이 크게 웃거나 작게 미소를 짓는 경우 기쁨이나 즐거움 등의 정서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나라에 공통적인 의미를 주는 웃음으로 정하였다.

표 2. 아동의 정서표현

정서	설명
웃음	큰 웃음, 작음 미소, 킬킬거리는 것 등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과 언어를 포함
짜증	지루함과 우울함, 좌절을 표현하는 것 ex) 눈물을 글썽이며 “나 못하겠어” “잉자꾸 틀리잖아”
화남	과제 수행을 거부하거나 강한 항의 혹은 반감을 표현하는 것 ex) 나 이거 안해(연필을 던지며) ex) 양말을 집어던지는 것

또한 부적 정서 중에서 짜증은 지루함이나 우울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각 정서에

대한 정의는 표 2에 나타나있다. 세 가지 정서에 대해 단위마다 중복 코딩하여 1점씩 주고, 전체 총점을 수행 시간의 단위로 나누어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3) 아동의 자기 조절

과제 수행동안 나타내는 스트레스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0-4점으로 평정하였다. 한 단위인 20초 동안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과제를 잘 수행한 경우에는 4점, 과제를 전혀 하지 않고 거부하는 부정적 행동이나 공격성을 나타냈을 때는 0점을 주었다. 또한 과제를 전혀 하지 않지만 공격성과 같은 극단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1점, 과제를 자주 중단하거나 짜증을 내기는 하지만 과제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2점, 한두번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는 하지만 과제를 대체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3점으로 코딩하였다. 전체 점수를 합하고 단위수로 나누어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 수행 동안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자기 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절차

자료분석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어머니와 아동이 관찰실을 방문하여 주어진 받아쓰기 과제를 다 수행하고 과제가 다 끝나면 자유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아동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쓰기를 다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자유놀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에게는 받아쓰기 견본을 만들 것과 과제를 대신 수행해주시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동이 연필을 칠 때부터 모든 과제를 마치고 연필을 놓을 때까지를 수행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

과정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 동요하거나 불안을 보이는 아동은 없었다. 코딩된 자료들은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몇 차례 서로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분석 준거와 점수화를 통일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우선, 각 나라별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나라 간의 차이를 t-test로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변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라별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1:1 일 때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므로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예측치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에는 SPSS version 15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의 과제 개입 행동의 비교

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개입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과제 개입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과제개입	한국(n=65)		일본(n=78)		t
	M	SD	M	SD	
통제적	.33	.28	.41	.27	-1.59
도움주기	.29	.26	.39	.30	-2.04*
격려	.06	.16	.21	.19	-5.30***

* $p < .05$, *** $p < .001$

표 3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 모두 통제적 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통제적 행동에

는 두 나라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일본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들보다 도움주기($t(141)=-2.04, p<.05$)와 격려($t(141)=-5.30, p<.001$)를 유의하게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과 일본 아동들의 정서표현과 자기조절의 비교

표 4는 한국 아동과 일본 아동의 정서표현과 자기조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표 4에 제시된대로, 한국 아동과 일본 아동들은 짜증이 나 화보다 웃음을 더 많이 보였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웃음에서만 유의하여($t(141)=-5.16, p<.001$) 일본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과제 수행에서 즐거움을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국 아동과 일본 아동의 정서 표현과 자기 조절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들	한국(n=65)		일본(n=78)		t
	M	SD	M	SD	
[정서표현]					
웃음	.18	.18	.37	.27	-5.16***
짜증	.01	.03	.01	.02	1.43
화남	.01	.05	.01	.06	-.07
[자기조절]	3.77	.34	3.84	.51	-.81

*** $p<.001$

3.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과제 개입 행동이 아동의 정서표현과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비교

먼저 한국과 일본의 피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상관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가 표 5에 나타나있다. 표 5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개입 행동($r=.25, p<.01$)과 도움주기($r=.29, p<.01$) 모두 아동의 짜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

한 어머니의 격려는 아동의 웃음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는데($r=.29, p<.001$) 이는 아동의 정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머니의 격려라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어머니의 개입 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기조절은 아동의 정서표현인 짜증($r=-.30, p<.001$) 및 화남($r=-.46, p<.001$)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자기조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각각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의 왼쪽 열들은 한국, 오른쪽 열들은 일본을 나타낸다. 우선,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적 개입 행동($r=.30, p<.05$) 및 도움주기($r=.46, p<.001$)와 아동의 짜증 간에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도움주기는 아동의 화남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 p<.05$). 또한 전체 상관에서와 같이, 아동의 짜증($r=-.50, p<.001$)과 화남($r=-.61, p<.001$)의 정서표현은 자기조절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적 개입 행동은 아동의 짜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25, p<.05$), 어머니의 격려하기는 아동의 웃음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30, p<.01$). 그러나 한국과 달리, 어머니의 도움주기와 아동의 정서표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모두 어머니의 개입 행동과 아동의 자기 조절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일본 집단에서는 아동의 화남이 자기조절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r=-.39, p<.001$) 한국처럼 짜증과 자기조절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전체 파험자에 대한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n=143)

변인	1	2	3	4	5	6
[어머니 개입행동]						
1. 통제적 행동	-					
2. 도움주기	.62***	-				
3. 격려	-.08	-.27**	-			
[아동의 정서표현]						
4. 웃음	.08	.10	.29***	-		
5. 짜증	.25**	.29**	-.14	-.12	-	
6. 화남	.14	.10	-.10	-.08	.45***	-
[아동의 자기조절]	-.01	.03	.04	.04	-.30***	-.46***

** $p < .01$, *** $p < .001$

표 6. 한국과 일본 집단 각각에서의 상관 관계

변인	한국 (n=65)						일본 (n=78)					
	1	2	3	4	5	6	1	2	3	4	5	6
[어머니 개입행동]												
1. 통제적 행동	-						-					
2. 도움주기	.56***	-					.65***	-				
3. 격려	.12	-.18	-				-.35**	-.50***	-			
[아동 정서표현]												
4. 웃음	-.13	.02	-.12	-			.13	.05	.30**	-		
5. 짜증	.30*	.46***	-.09	.01	-		.25*	.17	-.12	-.17	-	
6. 화남	.19	.30*	-.06	.02	.73***	-	.10	-.01	-.14	-.14	.21	-
[아동 자기조절]	-.11	-.22	.03	.10	-.50***	-.61***	.02	.13	.01	-.03	-.18	-.39***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이 보이는 과제 개입 행동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가 아동의 정서표현 및 자기조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두 나라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몇 가지로 요약,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면, 첫째, 본 연구 결과, 한국 어머니나 일본 어머니 모두 아동의 과제 수행에 개입할 때 통제적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 행동은 간섭이나 지

시를 포함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부모들이 아동의 과제 수행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모나 일본의 부모가 과제 수행과 학습을 중시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Holloway 등(1990)은 일본의 부모가 유아기부터 아동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가 아동의 과제를 통제하는 일본 어머니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통제적 개입 행동은 두 나라에서 모두 아동의 짜증과 관련이 있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동에게 부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반응할 때 아동의 정서능력이 저해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Shipman, & Zeman, 2001)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Neizel과 Stright(2004)는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머니의 일방적 지시가 아동의 수행을 저해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아동이 짜증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할 때 수행 동기는 낮아진다. 따라서 어머니의 통제적 개입 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적으로 아동의 부적 정서 표현이 높을수록 자기 조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 정서표현성 중에서 한국 아동의 경우에는 짜증과 화남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일본 아동의 경우에는 화남과 자기 조절 간의 관련성만이 유의하였다. 과제 수행에서의 자기 조절은 부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통제하여 중간에 그만 두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다(Freund, 1990; Kochanska & Aksan, 1995). 아동이 짜증이나 화를 표현한 것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부적 정서로 인해 과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 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아동이 싫어하는 과제를 할 때 과제를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과 기질적으로 높은 부적 정서성은 자기 조절과 더 나아가 과제 수행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한다는 말은 이러한 결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성에 이어,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어

머니들이 한국의 어머니보다 도움주기와 격려하기를 더 많이 나타내었으며 일본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웃음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격려하기에서의 차이는 현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규와 최순자(2007)의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들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격려하거나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의 도움 주기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행동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아동의 정서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화는 정서표현을 제한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웃음을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일본 아동의 정서표현성이 더 높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이라기보다 관찰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일본의 아동과 한국의 아동의 수행 시간의 평균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본 아동에게 과제가 더 수월하거나 혹은 즐거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과 일본 간에 가장 중요한 문화적 차이는 부모의 긍정적 개입 행동과 아동 정서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먼저 일본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격려가 아동의 정적 정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집단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어머니들의 도움주기 행동은 아동에게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도움주기가 아동의 정서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도움주기는 아동이 과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우개로 지워주거나 종이를 잡아주

는 행동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한국 아동들에게는 내적으로 좋게 수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간섭과 도움주기를 구분하기 위해, 아동이 원하지 않는데도 어머니가 도움을 주는 것을 간섭으로 정의하여 통제적 행동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점검하였을 때 도움주기로 코딩된 행동이 간섭과 혼동될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Neizel과 Stright(2004)는 아동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아동의 자율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현대 한국 사회가 보다 서구화된 분위기에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어 어떤 도움이나 개입을 크게 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좋은 도움이든 나쁜 간섭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끼어드는 것 자체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문화적 특성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타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부모의 과제 개입 행동과 아동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문화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좀 더 고려해야 할 제안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나 아동 모두 정서표현을 잘 하지 않고 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본 문화의 특성이라고 설명하지만 모자 관계에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양권 나라들 뿐 아니라 서구의 문화와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서구의 연구 결과들과 더 유사한 점을 보이는 것 같다. 이를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우리가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이전 연구에서 부모의 개입 행동과 아동의 자기 조절은 수행시간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만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개입 행동과 자기 조절 간의 직접적 관계가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수행 시간이나 아동의 성 등을 더 고려하여 추후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에 대한 부모의 행동을 살펴보았으나 더 다양한 상황의 모자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문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특히, 관찰 연구의 경우 상황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행동의 해석에 대한 비교 준거를 맞추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본 연구에서는 준거와 점수 체계를 통일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후 연구에서 관찰 상황과 피험자의 유사성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현덕 (1992). Socialization process of children within the family: cross-cultural study in Korea, Japan, India and the U.S.A. *교육학연구*, 30(2), 263-278.
- 송하나, 최경숙 (2009). 과제 수행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응 반응이 아동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95-111.
- 성희용, 방희정, 이순행 (2005).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머니 행동특성과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행동 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2), 57-74.
- 이정규, 최순자 (2007).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

- 육 태도와 아동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아동 교육*, 16(2), 145-158.
- 최순자(2008).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일본학보*, 74(1), 289-300.
- Colin, V. L. (1996). *Human attachment*. NY: McGraw-Hill Company.
- Dixon, S. D., LeVine, R. A., Richman, A., & Brazelton, T. B. (1984). mother-child interaction around a teaching task: an African-American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5, 1252-1264.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Fish, M., & Stifter, C. A. (1999). Parenting attitudes and behaviors in rural Appalachian mothers. *Journal of Rural Community Psychology*, E-2, 1. 1-28.
- Freund, L. S. (1990). Maternal regulation of children's problem-solving behavior and its impact on children's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1, 113-126.
- Hess, R. D., Kashiwagi, K., Azuma, H., Price, G. G., & Dickson, W. (1980). Maternal expressions for mastery of developmental task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5, 259-271.
- Holloway, S. D., Fuller, B., Hess, R. D., Azuma, H., Kashiwagi, K., & Gorman, K. (1990). The family's influences on achievemen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4(2), 196-208.
- Holloway, S., Suzuki, S., Yamamoto, Y., & Nehrens, K. (2005).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6, 61-76.
- Kashiwagi, K., Azuma, H., & Miyake, K. (1982). Early maternal influences upon later cognitive development among Japanese children: a follow-up study.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24(2), 90-100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Miyake, K., & Yamazaki, K. (1995). Self-conscious emotions, child rearing and child psychology in Japanese culture.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pp.488-504). NY: Guilford Press.
- Mulvaney, M. K., McCartney, K., Bub, K. L., & Marshall, N. L. (2006). Determinants of dyadic scaffolding and cognitive outcomes in first grade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4), 297-317.
- Neizel, C., & Stright, A. D. (2004). Parenting behaviors during child problem solving: the roles of child temperament, mother education and personality, and the problem-solving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2), 166-179.

- Nishino, Y. (1990). Types of preschoolers' self-regulation and their mothers' control. *The Japanes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9-58.
- Rothbaum, F., Weisz, J., Pott, M., Miyake, K., & Morelli, G. (2000). Attachment and cultur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55*, (10), 1093-1104.
- Shipman, K., & Zeman, J. (2001).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dyad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317-336.
- Sugano, Y. (2001). The effects of a mothers' negative feelings toward her child o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s. *The Japanes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1), 12-23.
-

1차 원고 접수: 2010. 07. 11
수정 원고 접수: 2010. 08. 12
최종 게재 결정: 2010. 08. 13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Task Performance,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and Children's Self Regulation

Hana Song Kyoungsook Choi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hunya Sogon
School of Human Sciences,
Koka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ltur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mo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task performance. The cultural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mothers's involvement on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and self-regulation were also examined. Sixty five Korean children and seventy eight Japanese children at age 6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teractive behaviors of mothers and children were videotaped and analyzed by coders. Results showed that Japanese mothers showed helping behaviors and encouragement more frequently than did Korean mothers. In addition, Japanese children expressed more smiles than did Korean children. About mother-child relationship, helping behaviors of Korean mothe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but this relation was not significant for Japanese mother-child dyads. Mothers' encourag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positive emotion in the Japanese group, but not in the Korean group.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Japan.

Keywords: task involvement, emotion expression, self regulation, cross cultural study, Japan